

말씀과 기도 동산

# 매일 만나

2021. 10.

October. vol. 1

고린도전서 15장 ~ 사무엘상 11장



"QT 매일 만나" 는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 10

# 시월

## Monthly Plan

SUN	MON	TUE	WED	THU
3	4	5	6	7
10	11	12	13	14
17	18	19	20	21
24 / 31	25	26	27	28

9

1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U	FRI	SAT
	1	2
	8	9
	15	16
	22	23
	2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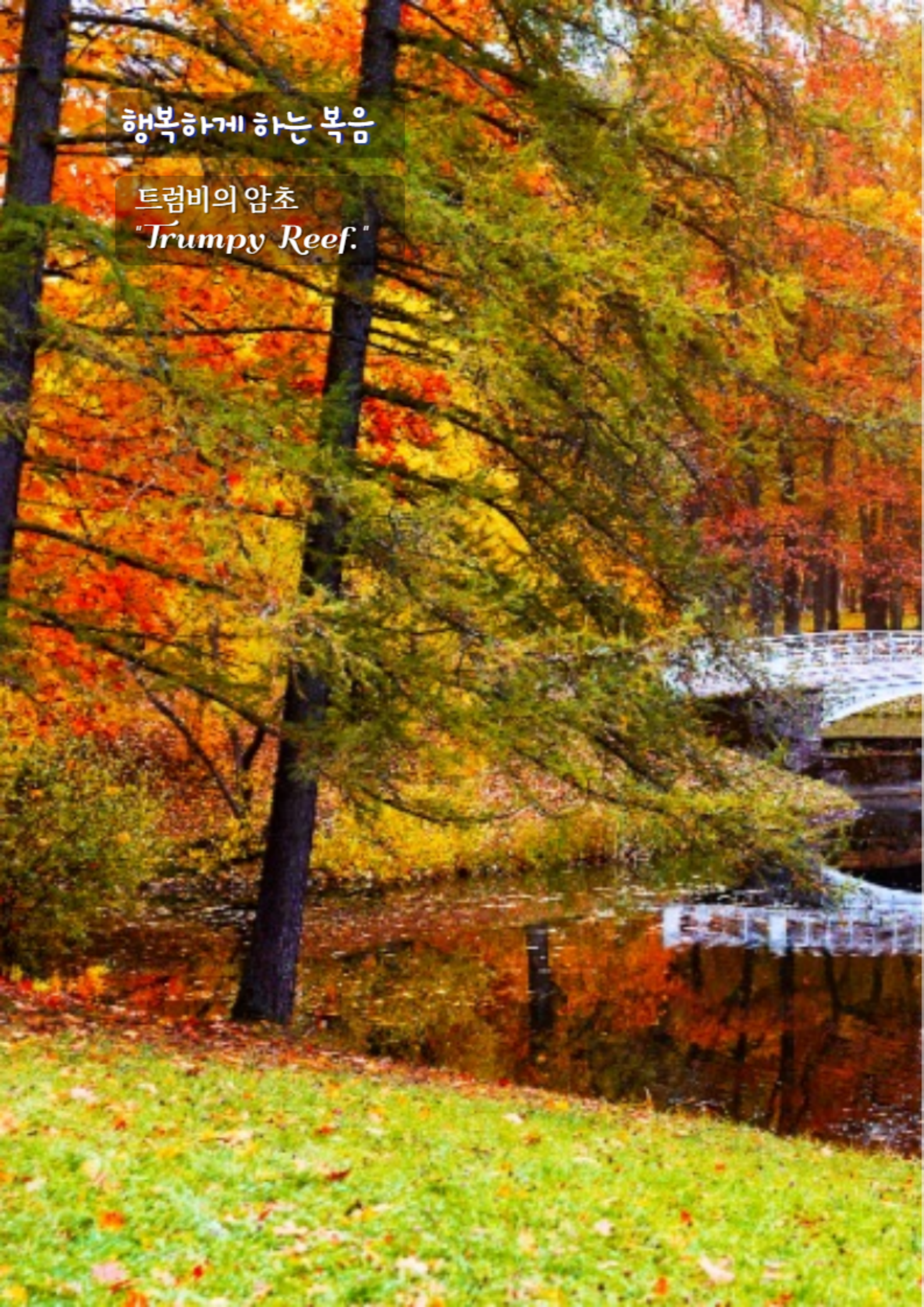
## Check List

- 
- 
- 
-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의지할 책은 성경 외에는 없다.  
 - 존 셀든

행복하게 하는 복음

트럼비의 암초  
*"Trumpy Reef."*



미국의 항구 도시인 포틀랜드에는 트럼비라는 암초가 있습니다.

트럼비는 원래 이 지역에서 유명한 선장의 이름이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배를 타고 항해술을 배우며 오대양을 건너다녔습니다.

성인이 된 트럼비는 배의 선장이 되었고  
포틀랜드에서 가장 뛰어난 항해술을 가진 선장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한 번은 트럼비가 출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트럼비라 하더라도  
이런 폭우를 뚫고 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만의 해안선과 바위,  
숨어있는 암초들에 대해서 이미 꿰고 있던 트럼비는  
묘기에 가까운 솜씨로 배를 조종하며  
항구 근처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폭풍을 뚫고 오는 트럼비의 배를 보며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항구 근처에 있던 작은 암초에 배가 부딪혔고  
이 사고로 항구 바로 앞에서 파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암초를 '트럼비의 암초'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순례를 하고 있는 성도들은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동일하게 임합니다.

단지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주님!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구원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게 하소서!

무슨 일이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마 25: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 - 성경 개관 -



*Holy Bible survey*

# 고린도전서

김요한 목사

### I. 저자

바울이 고린도전서라고 불리는 이 편지를 쓴 시점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뒤에 3년(주후 50년 가을에서 52년 봄까지)이 흐른 시점인 주후 54년일 것이다.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 선교를 허용하는 결론이 내려진 다음에, 49년 봄에 수리아(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떠나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계획의 실행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는 새로운 목표 역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유럽으로 건너간다(행15:40-16:10). 그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뢰아를 포함하는 마게도냐에 교회를 세운 뒤에(행16:11-17:15), 남쪽에 있는 아가야로 이동했으며, 아덴(행17:16-34)과 고린도(행18:1-18)에도 교회를 세웠다

### II. 고린도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와 아티카를 연결하는 지협에서 서쪽으로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했다. 이 도시는 주전 725년경부터 번성했고, 주전 600년경에 처음으로 화폐를 주조했다. 고린도는 로마에 대한 저항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주전 146년에 로마의 집정관 루키우스 뭉미우스(Lucius Mummius)에 의해 파괴되었다. 한 세기 동안 이 도시는 사실상 버려졌다.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는 이 도시를 로마의 식민지(Colonia Laus Iulia Corinthus)로 재건하고, 3천 명의 해방 노예와 퇴역 군인들을 정착시켰다. 식민지를 세운 목적은 로마와 지중해 동부 사이의 교역에 대한 통제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아폴론 신전과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남쪽의 스토아 청사 건물, 페이레네 샘, 글라우케 샘, 극장 등 파괴되었던 많은 건물이 복구되었고, 로마 양식을 뚜렷하게 따르는 새로운 건축물도 세워졌다. 주전 27년에 이르러 고린도는 원로원의 속주인 아가야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주후 50년에는 유명한 이스트미아 제전(올림피아 제전과 함께 고대 그리스 4대 제전 중 하나)의 주최권이 고린도에게 돌아왔다. 고린도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약 8만 명의 주민이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린도의 영토에 속하는 도시와 마을에 사는 주민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10만까지 늘어날 것이다. 1세기 고린도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그리스 문화보다 로마 문화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1세기에 만들어진 비문의 대다수는 라틴어로 기록되었다. 가장 중요한 신들은 아프로디테와 포세이돈이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엘리트 계층은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시들로는 데메테르와 코레/페르세포네, 이시스, 사라피스 등이 있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9장과 ‘히브리인의 회당’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2, 3세기의 상인방은 이곳에 유대인들이 거주했음을 보여준다.

### III. 고린도의 지리적 위치



### IV.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바울은 주후 52-55년에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선교 사역의 중심지를 세우고 있었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먼저 교회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 편지를 썼다(고전5:9). 이 편지는 남아 있지 않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에서 나타난 문제에 관해 소문을 들었던 것 같다. 이에 동역자 디모데를 보내 사도적인 삶과 가르침을 고린도인들에게 상기시켰다(고전4:17). 고린도에 관한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된 바울은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라고 부르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 고린도에 관한 소식은 적어도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전해졌다. ①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으며(고전7:1), ②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그에게 구두로 정보를 전해 주었다(고전1:11, 또한 5:1 참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다루는 주제가 많고 다양하지만, 그렇다고 단지 그가 알게 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기초적인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친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일부 신자들이 당시의 그리스-로마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거나,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난 뒤에 그 가치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러한 가치는 우월 의식을 드러내는 수사학, 웅변가들(교회의 선교사와 목회자들)에 대한 경쟁적인 평가, 성에 관한 순전히 실용적인 태도, 복장 규범으로 표현된 사회적 신분, 영적 은사들에 등급을 매기는 관점, 교회 모임을 주도하려는 입장 등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주제는 두 가지 주요한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회중 내부에 있었던 갈등이며, 또 하나는 그리스-로마 사회의 비기독교적이고 쾌락주의적인 가치관에 대한 타협이다. 다섯 가지 주제, 곧 교회 지도자(1:10-4:21), 송사(6:1-11), 주의 만찬(11:17-34) 영적 은사(12-14장) 그리고 스테바나와 아볼로(16:12-18)에 관한 일 등은 회중 내부의 갈등과 관련이 있다. 일곱 가지 주제, 곧 근친상간(5:1-13), 성적인 부도덕(6:12-20), 결혼(7:1-24), 미혼자(7:25-40), 이교 신전에서 식사하는 문제(8:1-11:1), 머리 가리개(11:2-16), 부활(15:1-58) 등은 문화적으로 타협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이 모든 주제를 연결하는 것은 복음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신다.



이러한 근본적인 현실이 교회와 개별 신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모두를 강하게 움직여(1:26-29) 복음을 믿게 한다(2:1-5). 나아가,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강력하게 변화시켜 그들이 세속적인 전통의 유혹과 관습을 거부하는 동시에, 동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저항하며(3:1; 5:10-11; 6:9-11; 15:32-34)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1:30).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그와 관련된 신학적인 변수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윤리적인 질문을 다룬다. 따라서 고린도전서는 특정한 윤리 문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과 그 신학이 일상적인 행동과 삶의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근본적으로 통찰한다.

## V.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

바울은 일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유일한 예외는 머리 가리개[11:2-6]와 성령의 은사[12-14장]에 관한 논의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1:23)임을 강조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경쟁의식이 무익함을 논증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 예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1:24; 또한 1:30; 2:1-2 참조).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3:11; 또한 4:15 참조). ‘주께서 오시기까지’(4:5), 곧 주께서 모든 기독교 사역자의 동기를 드러내실 때까지 교회의 선교사와 목회자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었던 근친상간 문제를 다룰 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5:7)에 관해 말한다. 그는 다른 신자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신자들을 비판하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상기시킨다(6:11). 또한 신자들이 창녀와 성적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6:20). 물론 그 값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다. 바울은 사회적 신분의 변화에 관해 논하면서 이 점을 거듭 강조한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7:23). 그리스도인이 이교 신전에서 열린 잔치에 참석하고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에 관해 논할 때,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거듭 강조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중재자이자 창조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 곧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임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이 주님이듯이 예수께서도 주님이시다(8:6).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동료 신자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행동을 삼가라고 권면한다(8:11). 또한 그는 주의 만찬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10:16), 이교 신전에서 식하는 것과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양립할 수 없음을 논증한다. 그는 회중 모임에서 부유한 신자들이 가난한 신자들을 무시하는 일을 다루면서, 예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주의 만찬의 전통을 설명한다(11:24-25). 다음으로, 신자들이 모임에서 ‘주의 죽으심’을 선포할 때(11:26),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제물로 바치셨듯이 그들 역시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함을 상기시킨다. 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이고 믿는 복음의 전통을 길게 언급하며 몸의 부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15:3-4).

### I. 서론(1:1-9)

### II. 교회 안에 있는 분열(1:10-4:21)

- A. 지도자에 관해 분열함(1:10-17)
- B.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1:18-2:5)
- C. 성령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2:6-16)
- D. 교회와 그 지도자들(3:1-23)
- E. 참된 사도직의 본질(4:1-13)
- F. 바울의 호소와 경과(4:14-21)

### III. 교회 안에 있는 윤리적인 혼란(5:1-6:20)

- A. 근친상간에 대한 논의(5:1-13)
- B. 신자들 사이의 송사(6:1-11)
- C. 성적인 부도덕(6:12-20)

### IV. 생활 방식에 관한 문제(7:1-11:1)

- A. 결혼과 독신(7:1-40)
  - 1. 결혼 생활(7:1-16)
  - 2. 신분의 변화(7:17-24)
  - 3. 처녀와 과부(7:25-40)
- B. 우상에게 바친 음식과 잔치 참여(8:1-11:1)
  - 1. 우상에게 바친 음식(8:1-13)
  - 2. 사례: 바울 자신의 태도(9:1-27)
    - a. 사도로서 바울의 권리(9:1-18)
    - b. 바울이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9:19-23)
    - c. 자기 규율의 필요성(9:24-27)
  - 3.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는 경고(10:1-13)
  - 4. 우상의 잔치와 주의 만찬(10:14-22)
  - 5. 신자의 자유(10:23-11:1)

### V. 교회 모임에서의 처신과 관련된 문제(11:2-14:40)

- A. 예배 때 머리 가리개를 착용하는 문제(11:2-16)
- B. 주의 만찬을 오용하는 문제(11:17-34)
- C. 성령의 은사(12:1-14:40)
  - 1. 영적인 은사(12:1-11)
  - 2. 몸의 통일성과 다양성(12:12-31a)
  - 3. 사랑(12:31b-13:13)
  - 4.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드리는 예배(14:1-25)
  - 5. 예배의 올바른 질서(14:26-40)

### VI. 부활(15:1-58)

- A. 그리스도의 부활(15:1-11)
- B. 죽은 자의 부활(15:12-34)
- C. 몸의 부활(15:35-58)

### VII. 맺은말(16:1-24)

- A. 주의 백성을 위한 연보(16:1-4)
- B. 개인적인 부탁(16:5-18)
- C. 마지막 인사말(16:19-24)

# 1

##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금요일

새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 고린도전서 15:12~19

-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 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 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 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 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 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 암송**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고전 15:17)



## 12~19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에 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설명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도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게 되며, 먼저 죽은 성도는 더이상 소망이 없게 될 것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써의 능력이 되는 것이며, 부활이 있기에 성도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며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요?

---



---



---

# 2

##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토요일

새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 고린도전서 15:20~28

-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 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 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 24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 25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 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 27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 28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말씀 암송**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 15:20)



## 20~28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열매를 누리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첫 열매가 나온다는 의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가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논증을 위해 바울은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두 죽은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이 삶을 곧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며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와 죄악의 세력을 진멸하고 정복함으로 모든 만유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그분을 닮기를 힘쓰고,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죄와 사망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길 기도합니다.

---



---



---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3

##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주일

새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 고린도전서 15:29~34

- 29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 30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 32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 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 34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말씀 암송**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전 2:5)



## 29~34절 부활의 바른신앙을 가지라

바울은 자신의 확고한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온갖 고난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만약 성도의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더이상 선한 행실을 할 필요도 없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절대 그럴 수 없는 건,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에 따른 영생 또한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부활의 지식과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극단적 재림신앙과 잘못된 부활관으로 미혹하게 하는 이단과 사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경에 기초한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확신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는 성도로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



---



---

# 4

##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월요일

새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5:35~49

- 35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 36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 37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 38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 39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 40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 41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 42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 43 욱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 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 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 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 48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 49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 암송**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엡 4:23-24)



### 35~39절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성도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식물의 성장을 통해 역설적으로 부활을 논증합니다. 뿌려진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씨앗이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만물이 부활의 진리를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초라한 한 포기 풀을 보고서도 부활을 느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뿌려지는 썩어질 씨앗에 하나님께서 완성된 형제를 주십니다. 씨앗이 자라 완전한 형체를 갖추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없이는 어떤 결실도 볼 수 없습니다.

### 40~49절 하늘에 속한 영광

부활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질서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죽음과 부패는 창조질서의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물이 사망의 저주 아래 그대로 있다면 고통과 슬픔, 좌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으로 성도의 부활과 동시에 썩을 것에서 썩지 않으므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도 본래대로 회복되어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흠으로 지음받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사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부활의 몸을 입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세상이 던진 소망에 대한 의문에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망설임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5

##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화요일

새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고린도전서 15:50~58

- 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 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 56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말씀 암송**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전 4:1)



## 50~54절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도 변화 되리라

혈과 육, 썩은 것은 불완전하며,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아니하는 것은 완전하고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장차 썩어질 현재의 육체를 입은 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몸(육체)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새 몸(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기 위해서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도, 불행도 아니라 영원한 복과 소망의 시작입니다.

## 55~58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사망은 여전히 실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갑니다. 그런데,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사망이 완전히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완전히 패배하고 무력하게 될 것이라고 호세아 1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소망을 믿는 성도는 죽음을 향해 이러한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실패와 좌절과 슬픔 속에 사십니까?

---

---

---

# 6

## 성도를 위한 연보

수요일

새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고린도전서 16:1~4

- 1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 2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 3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 4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 말씀 암송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라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 6:10)



## 1~4절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연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롬15:26).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행11:28~30).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구제 헌금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히13:16)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고린도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도 협력을 구한 사실을 밝히며, 동일하게 섬겨 주기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보여줍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출석 교회는 다르더라도, 교회는 하나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세워가는 일에 노력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는 일과 연약한 이웃을 돕는 일에 가장 방해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7

## 주의 일을 힘쓰는 자

목요일

새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 고린도전서 16:5~12

- 5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6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7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8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9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10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11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2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말씀 암송**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고전 16:10)



## 5-9절 모든 삶은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본서를 쓰고 있던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하고 난 연후에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행 19:21; 고후 1:16). 하지만 바울은 행로를 변경하여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한 후에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언급합니다(5~7절).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부끄러운 사건을 전해 듣고 이에 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 10-12절 질서의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 디모데만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섭리가 있어 각 교회에 파송한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며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도 주께서 인도하시기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



---



---

# 8

##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금요일

새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 고린도전서 16:13~24

- 13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 14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 15 형제들아 스테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 16 이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 17 내가 스테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 18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 주라
- 19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 20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 21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 22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 2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고
- 24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말씀 암송**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전16:20)



## 14-18절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시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권면하면서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 대한 말을 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에서 첫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써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고전1:16).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헌신함으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조력자로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없을 때 바울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을 메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도록 말씀합니다. 인정해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삶의 기본원리도 하나님의 사랑 위에 있으므로 이 사랑이 나타나는 곳마다 생명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랑은 생명을 방출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은사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최고의 것으로 간주했기에 스데바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사랑에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섬김은 자신을 낮추는 삶입니다. 섬김은 베풀어 주는 삶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남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남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사역과 섬김은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인정해 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칭찬에 너무 인색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 순종함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는 칭찬에 너무 인색합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



---



---

## - 성경 개관 -



*Holy Bible survey*

# 사무엘상

안광모 목사

### I. 소 개

이 책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새로 출범할 왕정 제도에 신학적 정당성과 정체성을 부여할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평가되는 다윗의 왕조가 뿌리 내리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사무엘서는 또한 이스라엘에 왕정이 설립된 과정과 그 왕정이 갖는 신학적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왕정 시대를 맞이했는지, 특히 이 과도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에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묘사한다.

### II. 역사적 정황

사무엘서는 주전 12세기 말부터 약 15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탄생한 사무엘은 적어도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삼상 7:2). 그러나 실제 기간은 이보다 훨씬 긴 50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삼상 2:18-21; 3:1-8; 1, 5; 12:2).

사무엘이 노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기브아 사람이었다(삼상 10:26).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사울은 그곳을 자신의 집권 중심지로 삼았다(삼상 15:34; 22:6; 23:19).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사울은 주전 1050년쯤 왕으로 취임했을 것이다. 다윗은 사울의 40년 통치 후인 주전 1010년경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즉위했고, 7년 반 동안 나머지 지파들이 지지하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내전을 치른 후 아브넬의 중재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적은 블레셋이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법궤를 빼앗겼다가 사무엘 때 다시 찾기도 했고, 사울과 그의 아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고, 다윗 때가 되어서야 완전히 퇴치되었다. 그들은 엘리-사무엘-사울-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을 뿐 아니라 40년간 지배하기도 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의 국제 정세는 상대적으로 매우 평온한 편이었다. 앗수르는 자신의 힘을 키우는 데 급급하여 제국 형성이나 영토 확장에 관심을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앗수르는 다윗이 죽은 지 1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국제 무대의 강자로 발돋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근동 지역의 국제적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다윗은 통일왕국이 된 후 여부스 족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지형적으로는 적은 수의 군사로 많은 군사를 대적할 수 있는 천연요새를 얻었다. 동시에 예루살렘은 여호수아에 의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 정복군이 점령하지 못한 성읍이기도 했다.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은 앗던 이를 빼낸 것과 같은 일이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 통치상의 수도로 삼은 것은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졌다. 그때 벌써 이스라엘의 북쪽 세력과 남쪽 세력 사이에 견제 혹은 경쟁 구도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은 남북 화합에 기여했다.

뿐만아니라 다윗은 여러 지파 출신을 정부 관료로 두루 등용하여 정치적 능력을 드러냈고, 레위 지파를 성전에 등용하여 범민족적인 통일성을 추구했다.

### III. 신학적 주제들

#### (1) 왕권

사무엘서는 왕권에 대한 백성들의 최초의 요청,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적 왕권 수립, 첫 왕 사울의 비극적 통치, 그의 대를 이은 다윗 왕의 중앙 집권 체제, 다윗 왕과 그의 집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권 약속 그리고 다윗 왕권의 쇠퇴와 최후 등 책 전체가 이스라엘의 초기 왕들과 왕정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가 이스라엘의 초기 왕들에게 이처럼 각별한 관심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범한 이스라엘이 안정적이고 거룩한 왕권의 통치를 받아야만 번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의 횡포를 막고, 열방처럼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열방처럼' 된다는 것은 '열방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것(삼상 8:19-20)'이었다. 간단하고 순박한 바람으로 보이는 이들의 염원은 매우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야기했다. 그들은 더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그들과 호흡을 같이하는 인간 왕의 군림을 선호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정 도입을 언약 과기 행위로 해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들이 새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사무엘은 왕에 대해 '취하는 자'라고 묘사했고, 세금, 징병 등을 통해 백성들로부터 끊임없이 취할 것을 경고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무엘의 일생처럼 끊임없이 주는 것이었다.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택한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이 세운 왕에게 끊임없이 바쳐야 한다. 그렇다면 왕과 백성의 근본적인 관계는 어떤 것인가?

사무엘은 분명히 경고한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 (2) 선지자권

만일 왕정이 실행되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유효하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에 걸맞은 정치를 하도록 보장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무엘이 경고한 것처럼 왕이 '취하는 자'라면, 어떻게 그가 '지나치게 취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안전장치 역할을 하도록 선지자 제도를 설계하셨고, 선지자들에게 그 역할을 담당시키셨다.

그들의 권위에 대한 묘사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초기 왕들과의 관계에서 절정에 달한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누구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또 누구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입었는가?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의 왕복을 벗김으로써 그의 폐위를 상징적으로 세상에 드러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킹 메이커'인 동시에 폐위도 시키는 '킹 브레이커'였<sup>1)</sup>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했다. 선지자들의 인준은 곧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했으며, 선지자의 인정이 없는 정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서자 정권에 불과했다.

## (3)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

한나의 노래(삼상 2:1-10)와 다윗의 노래(삼하 22:1-23:7)는 사무엘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두 텍스트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수미쌍관 구조로, 사무엘서를 둘러싸는 외곽틀이며 사무엘서 전체를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다.

사무엘상의 한나의 노래에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며, 둘째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을 일으키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사울이 겸손했을 때는 왕으로 추대되지만 교만했을 때는 폐위를 당하고, 사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메시아 왕을 준비시킴이 나타난다.

## IV. 사무엘상의 구조

사무엘상은 구성상 건축물이기보다 유기체에 가깝다. 역사와 문학, 그리고 신학이 서로 얽히고설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 이 내러티브의 유기체적 특성이 사무엘상 구조 분석의 잣대를 제공해 준다. 즉 사무엘서의 역사적 성격은 시간적 구분방식을, 문학적 특성은 문학적 단락 구분방식을, 그리고 신학적 특성은 신학적 주제에 따른 구분 방식을 잣대로 사용하게 해 준다.

### 1) 시대에 따른 연대기적 구조 분석

시대에 따른 연대기적 구조 분석은 사무엘서를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의 통치 시대로 구분한다.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다윗 시대의 구분은 사울의 등극 및 죽음의 기록과 일치하며 사무엘서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장점이 있다. 이에 기초하여 사무엘상을 시대적으로 분석하면 아래 구조를 얻을 수 있다.

사무엘 시대(1-12장)  
사무엘의 탄생과 소명(1-3장)  
엘리 시대의 종말(4-6장)  
사무엘 시대의 언약 갱신과 승리(7장)  
왕정의 시작과 사울의 즉위(8-12장)  
사울 시대(13-31장)  
사울의 통치(13-15장)  
다윗의 흥기(16-31장)

### 2) 문학적 구분 방식에 의한 구조분석

이번에는 문학적 구분 방식에 의한 구조 분석의 예를 살펴보자. 사무엘서는 단락 구분 표시로 인정된 네 구절이 있다.

첫째는 사무엘 사역요약(삼상7:15-17)이고,  
둘째는 사울의 통치 요약(삼상14:47-52)이고,  
셋째는 다윗의 통치 요약(삼하8:15-18)이고,  
넷째는 다윗의 관리(삼하20:23-26)다.

이 네 요약은 자연스럽게 사무엘서를 5등분한다. 그 외에 구분 표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는 사무엘의 즉위, 사무엘의 죽음, 다윗의 세 번 기름 부음 받음,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과거를 해석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말씀이 있다. 이것을 감안하여 사무엘상의 구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1-7장)  
왕정의 시작(9-12장)  
초대왕 사울의 통치(13-15장)  
사울의 쇠망과 다윗의 흥기(16-31장)

### 3) 신학적 주제에 의한 구조 분석

이제 신학적 주제에 의한 구조 분석의 예를 살펴보자.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를 '왕정'으로 정하고 이 주제의 역사적, 논리적 발전을 고려하여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좋은 예이다. 이 방법은 한 주제를 중심으로 사무엘서를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사무엘서 전체의 구조를 왕정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왕정 설립의 배경(삼상1-7장)  
왕정의 설립(삼상8-12장)  
사울의 왕정(삼상13-15장)  
사울 왕정의 쇠망과 다윗의 흥기(삼상16:1-삼하5:5)  
다윗의 왕정(삼하5:6-9:12)  
다윗의 왕정(삼하10-20장)  
다윗 왕정의 반성(삼하21-24장)



# 9

## 매년 여호와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토요일

새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사무엘상 1:1~8

- 1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 2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 3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와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 4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 5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 6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 7 매년 한나가 여호와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 8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말씀 암송** 여호와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데다 (삼상 2:7)



### 1-2절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지역에서 살기에 에브라임 사람이라 하지만 사실은 역대상 6장에 의하면 레위인입니다. 그는 레위인이요 경건한 자였지만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시대였지만 엘가나의 중혼을 통하여 당시의 사사시대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된 레위인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혼을 함으로 율법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 3-8절 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한나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여 그 마음에는 열등의식이 가득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함으로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까지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결단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한나의 고통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



---



---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10

## 여호와께 기도하고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주일

새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 사무엘상 1:9~18

- 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 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 12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 13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 14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라 하니
- 15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 16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 17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 18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말씀 암송**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삼상 1:15)



## 9-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고대 사회에서 무자함으로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브닌나의 멸시와 핍박이 더해져 심적 고통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아뢰고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한나는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그저 성전에 머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머문 사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 12-18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12절을 보면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오래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의자에 앉아 있던 제사장 엘리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주목하여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집요하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를 오래하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낙심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는 그를 술 취한 자로 보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엘리의 모습은 영적으로 우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의 입을 통해서 한나에게 응답하십니다. 부족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한나도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

---

# 11

#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월요일

새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 사무엘상 1 : 19 ~ 28

- 19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 20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 21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 22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 23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 떼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 떼기까지 기다리다가
- 24 젖을 떼 후엔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 25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 26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 27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 28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 암송**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삼상 1:27)



## 19-20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는 엘리가 말한 대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하셨고, 한나 역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을 얻은 이 기록에는 하나님과 한나의 친밀한 교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셔서 사무엘을 주셨듯이 기도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 21-28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 드린 대로 그는 어린 사무엘이 젖 떼거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27-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다는 한나의 신앙고백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

---

---



# 12 주의 구원으로 기뻐함입니다

화요일

새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 사무엘상 2:1~11

- 1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입니다
- 2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입니다
- 3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 4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 5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주리던 자들은 다시 주리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 6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 7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 8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 9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 10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 11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말씀 암송**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삼상 2:7)



## 1-11절      한나의 노래

2장에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한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성도의 크고도 유일한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떻게 행하실지를 노래했습니다. 이런 한나의 고백은 사무엘상의 주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의 다윗의 노래와 함께 사무엘서 전체를 감싸는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노래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떻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지,  
둘째, 하나님은 인간의 악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지,  
셋째, 메시아 왕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성도의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영적인 어둠의 시기에 한나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를 믿음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

---

---

# 13

##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수요일

새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 사무엘상 2: 12 ~ 26

- 12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 13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은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 14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 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 15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 16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 17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 18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뻐 입을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 19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걸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 20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 21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 22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 2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 24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와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 25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 26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말씀 암송**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삼상 2:26)



### 12-17절; 22-25절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성직자로서 성결과 헌신하지 못하고 자신의 향락과 욕심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건한 제사를 문란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까지 실족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 18-21절; 26절

반면에 한나는 사무엘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 집례자가 입던 옷으로서 사무엘의 경건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를 회복시킬 제사장으로 자라날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가나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에 대한 한나의 기도와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홉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엘리 제사장의 염려와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

---

---

# 14 여호와와 뜻대로 행할 것이라

목요일

새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 사무엘상 2:27~36

- 27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 28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뻐 입을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 29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 30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 31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 32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 33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 34 네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 35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 36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엮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 암송**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삼상 2:35)



### 27-34절

하나님은 과거 엘리 제사장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열거하신 후 지금 징벌을 내려야만 하는 이유를 열거하십니다. 즉 엘리가 제사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것을 지적하시면서 엘리 가문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 35절

한나 가문의 번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 제사장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금까지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

---

---

# 15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금요일

새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 사무엘상 3:1~14

- 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 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 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 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 5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 6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 7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 8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 9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 10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하니
- 1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 12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 13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 14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말씀 암송**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하니 (삼상 3:10)



### 1-14절

영적으로 타락하여 진리에서 떠난 이스라엘은 스스로 성화될 수 없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여셔서 영적 재생을 이루기 위해 사무엘을 부르셨다.

### 4-8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무엘은 그분의 목소리를 식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네 번이나 부르셔서 교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대화를 원하시며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 10-14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후 엘리 가문의 파멸에 대한 예언을 전해 주셨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교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

---



# 16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토요일

새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 사무엘상 3: 15~21

- 15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 16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 17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 18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 19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 20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 21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 암송**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 15-21절

사무엘은 잠시 주저하기는 하였지만, 엘리에게 물음에 대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참선지자의 모습이다. 나단 선지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 왕에게 그의 죄를 담대히 지적했다.

엘리 역시 비록 자신의 집의 파멸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



나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인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익과 반할 때,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지 생각해 보자.

---

---

---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17

## 화로다 이런 일이 없었도다

주일

새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 사무엘상 4:1~11

- 1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 쳤더니
- 2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사천명  
가량이라
- 3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 4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와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 5 여호와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 6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와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 7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 8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 9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 10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엮드러진  
자가 삼만 명이었으며
- 11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말씀 암송** 여호와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 매 땅이 울린지라 (삼상4:5)



## 1-11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다.

### 1-4절 언약궤를 가져오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블레셋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기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성경적이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자기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 언약궤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그의 말씀을 준행하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성막에 있어야 할 언약궤를 이용한 것이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나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 이용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 5-11절 흡니와 비느하스의 죽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은 블레셋 군대는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놀란다. 하지만 그들이 격려하며 힘을 내어 싸운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하게 된다.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미신적 행위에 불과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헛된 믿음을 징계하신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미신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

---

---

# 18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월요일

새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 사무엘상 4: 12~22

- 12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 13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리매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 14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 15 그 때에 엘리의 나이가 구십팔 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 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 17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 18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사십 년이었더라
- 19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푸려 해산하고
- 20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 21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 22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말씀 암송**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삼상4:21)



## 12-22절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12절-18절은 엘리 대사장이 전령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참패와 그의 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의자에서 넘어져 죽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19-22절은 해산할 날이 가까운 비느하스의 아내가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은 것을 듣고 조산 후에 죽은 것을 기록하고 있다.

## 12-20절 비참한 엘리가문의 최후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훔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듣게 된다. 엘리 제사장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하거나 영적인 지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5절)라는 표현이 이를 잘 보여준다.

## 21-22절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을 때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 이는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엘리와 두아들은 그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즉각 회개했어야 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며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영적인 공동체 전체를 심각한 위기를 일으킨다.



내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죄는 무엇이 있는가?

---

---

---



# 19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화요일

새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 사무엘상 5: 1 ~ 12

- 1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페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 2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 3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 4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 5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 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 6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시라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 7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 8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 9 그것을 옮겨 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시라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 10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 11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므로
- 12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말씀 암송**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신5:12)



### 1-12절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러한 언약궤를 이용하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다. 언약궤를 차지한 블레셋은 이제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한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패배했지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1-7절 다곤 신상의 파괴와 독종재앙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 곁에 둔다. 하지만 다음날 보니 다곤의 신전의 얼굴이 땅에 엎드려져 있다. 그 다음날 다시 세웠는데 다곤의 신전이 똑같이 엎드려져 있을 뿐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다곤의 몸통이만 남게 된다. 그 뿐 아니라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이 일어난다. 결국 아스돗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게 된다.

### 3-7절 계속되는 독종재앙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지만 독종의 재앙은 멈추지를 않는다. 언약궤가 이르는 도시마다 독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독종 재앙은 하나님께서 힘이나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각인시켜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주관하는 분이시다. 우리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지지 않는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 적용해 본다면?

---

---

---

# 20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다

수요일

새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 사무엘상 6:1 ~ 18

- 1 여호와와 그의 귀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 지 일곱 달이라
- 2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귀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 3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귀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낮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 4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 5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 6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 7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멩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젓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 8 여호와와 그의 귀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귀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 9 보고 있다가 만일 귀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 10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젓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 11 여호와와 그의 귀와 및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 12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 13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귀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 14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나무 를 때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 15 레위인은 여호와와 그의 귀와 그 귀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 매 그 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 16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 17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 18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와 그의 귀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에 오늘까지 있더라

**말씀 암송**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신6:12)



### 1절-9절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은지 7개월이 되었다. 7개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 반환을 결정하고 그 반환 방법을 자기 우상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에게 구한다. 그들이 생각해 낸 것은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속건제물로 방백들의 수효대로 금독종과 금쥐를 각각 다섯씩 드리는 것과, 멩에를 맨 적이 없는 젖 나는 소 둘이 끄는 새 수레에 언약궤를 설어 넣는 것이다. 이는 이들이 이스라엘 제도에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



---



---

# 21

##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목요일

새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 사무엘상 6:19~7:2

- 19 벤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 20 벤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 21 전령들을 기랏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 사무엘상 7:1~2

- 1 기랏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 2 궤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씀 암송** 벤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삼상6:20)



## 19절 그들을 치사..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와 그의 관해 주제넘은 짓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벤세메스 사람들 중 일부가 귀 안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 일부를 치십니다. 제사장들도 '잠시라도' 성물을 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죽을 것입니다(민4:20).

## 20절-7장 2절

벤세메스 사람들은 5:7-8에 나오는 아스돗 사람들과 비슷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언약궤를 떠나보내기 원합니다. 그들은 기랴여아림에 전령들을 보내 언약궤를 가져갈 것을 요구합니다.

## 21절 기랴여아림

벤세메스에서 동쪽으로 16Km 떨어진 소렉 골짜기에 위치한 곳. 이곳은 기브온 주민의 성읍들 중 하나이며(수9:17),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이 언약궤를 두기에 문제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는 다윗 왕이 되찾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까지 거의 20년 동안 이곳에 머물렀습니다(삼하6장).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의 모습은 없는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봅시다.

---

---

---

# 22

## 여호와만을 섬기라

금요일

새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 사무엘상 7:3~6

-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 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 5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 6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말씀 암송**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삼상7:5)



### 3절

백성은 그들을 압제하는 '블레셋 사람의 손'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배도의 길 위에 있고, 우상숭배 때문에 혹독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회개와 개혁을 촉구합니다. 그들은 ①우상을 제거하고, ②여호와께 헌신하며, ③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의 지배로부터 건져 내실 것입니다.

### 4절 아스다롯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

### 5-6절 미스바

사무엘은 이에 대한 반응으로 죄 고백의 의식을 위해 이스라엘 전체를 미스바로 소집합니다. 사무엘은 이때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행할 것입니다. 구약의 다른 곳에서 사무엘은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묘사됩니다(12:19; 시99:6; 렘15:1).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①자신들의 슬픔과 회개를 나타내는 전제를 드리고(삼하23:14-17), ②애통의 표시로 금식하며, ③여호와께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나만의 '영적 미스바'가 있습니까?

---



---



---



# 23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토요일

새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 사무엘상 7:7~17

- 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 8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 9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 10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 1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벧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 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 13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 14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 15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 16 해마다 벧엘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 17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 암송**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삼상7:12)



### 8-9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듣고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온전한 번제로 바침으로써, 백성들의 요구에 응합니다. 어린 양은 생후 첫 일주일은 어미와 함께 있어야 했고, 그 기간 후에 제물로 받아들여집니다(레22:27).

### 10-11절

사무엘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에 맞서 전열을 갖춥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전투를 이끄십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십니다. '어지럽게 하시니'(10절). 하나님이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에 행하신 일(출14:24)과 하나님의 모든 적에게 행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일(삼상2:10; 출23:27)을 묘사합니다.

### 15-17절

사무엘은 사사로서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 하마다 순회 여정에 나섭니다. 사무엘의 본거지는 라마이며, 그는 벵엘, 길갈, 미스바를 다녀갑니다. 이 네 성읍은 모두 교통량이 많은 중앙 능선 길로 알려져 있었고, 세겜에서 헤브론까지 산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등성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됩시다.

---

---

---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24

##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주일

새찬송가 270장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

### 사무엘상 8:1~9

- 1 사무엘이 늙으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 2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 3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 4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 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 6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 8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 9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말씀 암송**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삼상8:7)



## 1절 사사

그들이 사사로서 사무엘의 뒤를 이을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이 행동은 족벌주의를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직분은 세습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세습에 강하게 반대합니다(삿8:22-23). 따라서 사무엘 자신이 왕정의 기초를 닦는 데 기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6절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개인에 대한 거부도 한몫하지만, 사무엘의 주된 염려는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여호와께 나아갑니다.

## 7-9절

백성은 사실 사무엘과 사무엘의 사사 직분에 반대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왕을 대신하는 신정 왕국(하나님이 궁극적인 왕이 되신다)의 개념을 제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세속적인 왕이 백성에게 무엇을 강요할지에 대해 알리고 경고하라고 명하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

---

---

# 25

##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월요일

새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사무엘상 8: 10~22

- 10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와 모든 말씀을 말하여
- 11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 12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 13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 14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 15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 16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 17 너희의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 18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 19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 20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 21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 22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말씀 암송**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삼상8:19-20)



### 10~18절 왕정 제도에 대한 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강대하고, 있어 보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여 자신들의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나아왔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사람을 왕으로 세워 오히려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왕에게 빼앗기고 자신들은 노예와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는 왕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타락한 인간을 통한 왕정 통치의 부패함으로부터 나오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을 통한 왕정 정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미리 예견하면서 하나님을 붙들 것을 권고합니다.

### 19~22절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지금보다 다른 나라들의 모습이 좋아 보기에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버리고 인간 왕의 통치를 원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처럼 그들은 고단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내가 좋아보이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



---



---



# 26

## 우리 길을 가르쳐 주소서

화요일

새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 사무엘상 9: 1 ~ 14

- 1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 2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 3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 4 그가 예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 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 5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 6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 7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 8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 9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 10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 11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으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 12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 13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 14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말씀 암송**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삼상9:6)



### 1~5절 암나귀를 찾으러 간 사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소개하면서 그가 아버지 기스의 말에 따라 사환과 함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사람의 땅을 살펴보았으나 결국 찾지 못합니다.

### 6~14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사울

아무리 암나귀를 찾아도 찾지 못하자 사울은 사환에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 때 사환이 성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권유합니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말에 동의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성읍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 왕을 선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

---

---

## 사무엘상 9: 15~27

- 15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 16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 17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 18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 19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 20 사흘 전에 잃은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 21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 22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삼십 명 가량이었더라
- 23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 24 요리인이 넓적다리wa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 25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 26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 27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더라

## 말씀 암송

내일 이맘 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삼상9:16)



### 15-17절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보내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18-27절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

사무엘은 사울이 찾던 암나귀는 이미 찾았으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은 미약하다고 말하였으나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말처럼 미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함께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

---

---

# 28

##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목요일

새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 사무엘상 10:1~8

- 1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 2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 3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오려고 베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진 자라
- 4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 5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 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 6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 7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 8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 동안 기다리라

**말씀 암송**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삼상10:6)



## 1~8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

여호와와 그의 대리인으로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세 사람이 사울에게 인사하고 떡 두 덩이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사울의 새로운 지위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영이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지자들처럼 예언을 하였고 이전과는 다르게 변하여 새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는 다르게 여호와와 그의 영이 임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직분과 사명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당신은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



---



---

# 29

##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금요일

새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사무엘상 10:9~16

- 9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 10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 11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 12 그 곳의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 13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 14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 15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 16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말씀 암송**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삼상10:9)



9~16절

### 새마음을 주신 하나님, 겸손했던 사울

사무엘에게서 돌아서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변화된 요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 자신도,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숙부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말한바 곧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사울이 얼마나 지혜로웠고 겸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숙부의 요구를 들었을 때, 얼마든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필요한 말만을 하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주실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날마다 겸손히 나의 중심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



---



---



## 사무엘상 10:17~27

- 17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 18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 19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 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 20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 21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 22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 23 그들이 달려 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 24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 25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 26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 27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말씀 암송**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삼상 10:24)



## 17-27절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제비뽑기의 결과 열두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그중에서는 기스의 가문이 뽑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베냐민 지파와 또 기스의 가문이 뽑힌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고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왕이 선택되는 순간에 어떤 이들은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멸시하는 말을 합니다. 즉 그들은 사울이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함부로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무한하신 능력으로 약한 우리들을 통해 그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



---



---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설교 노트

제목

본문



적용



# 31

##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주일

새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사무엘상 11:1~11

- 1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 2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 3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 4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 5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 6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 7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 8 사울이 베섹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삼십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삼만 명이더라

- 9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 10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 11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삼 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말씀 암송**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삼상11:9)



1~11절

##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과 이스라엘의 승리

암몬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길르앗 야베스는 암몬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침략하기가 훨씬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침략해 온 암몬 사람에게 아무런 대항도 해보지 않은 채 암몬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조약체결을 제안합니다. 이는 당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형편이 매우 다급했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위기가 닥치자 곧바로 암몬 사람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자기가 몰고 있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 지경에 보내며 군사를 소집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즉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아왔다는 말입니다. 결국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새벽에 적진으로 쳐들어 갑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돕되 신속하게 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울은 그 백성들과 함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당신은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



---



---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 매일 만나

2021. 10.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조문상 최청환

| 한성훈 안광모

| 이상호 박예일

| 김요한 송주원

| 정재형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





매일 만나는 말씀으로 떠나는 안내서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으로 주님과 만나세요.



대한예수교장로회  
원주중부교회



강원도 원주시 복원로 2115  YouTube 원주중부교회   
☎ 033-744-2760~2 | Fax 033-744-2763